

농어촌공사 5기 사내벤처팀 활동 본격화

- 새로운 도약과 혁신으로 농어촌의 미래를 이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토대로 선정된 공사의 사내벤처팀 ‘방초소년단’팀과 ‘로컬메이커즈’팀이 사내벤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임직원의 아이디어, 경험, 역량 등을 활용해 신성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KRC 사내벤처 팀 선발 IR* 대회’ 열었고, 1·2차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방초소년단’팀의 「비농업 분야 생태적 잡초 방제 서비스사업」과 ‘로컬메이커즈’팀의 「(우마빌) 우리 마을을 빌려드립니다」를 최종 선정했다.

*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 홍보 활동 등을 하여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에 출범한 ‘방초소년단’팀은 저수지 제당 등 공사 시설물에 초생재배* 농법을 활용한 잡초 방제 서비스 구현으로 제초 활동에 드는 인력,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태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초생재배: 과수원 같은 곳에서 제초 대신 목초, 녹비 등을 나무 밑에 가꾸는 재배 방법으로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지력 증진, 수분 보존 등의 효과를 가진다.

‘로컬메이커즈’팀은 농촌 지역의 빈집, 폐교 등 유휴시설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결핍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공유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지역개발 업무 입지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의 혁신을 이끌어가게 될 벤처팀들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조직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선정된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작년엔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공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담당 부서	기반계획처	책임자	부 장	권영준 (061-338-5321)
	기반계획부	담당자	차 장	김세형 (061-338-5322)